

<2012년 7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꿈에서 범죄 했어도 회개해야 된다. 이는 자기가 생시에 죄지은 것을 영계로 보여 주고 깨우쳐 준 것이다.
2. 생시에 자기가 범죄 했어도 잘 모른다. 영적으로 보면 확실히 보인다. 고로 꿈에서 죄지은 것도 회개하는 것이다.
3. 욱하고 성질내다가 상대와 싸움도 하게 되고 격한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 마음으로 미워하여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욱까지 죽이기도 한다.
4. 자기 욱성으로 편안하고 안일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욱하는 마음이다. 이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5. 꿈을 통해 지난날 자기 잘못이 보이기도 하고, 앞날에 행할 잘못이 미리 보이기도 한다. 기도하여 회개함으로 없애라.
6. 욱신의 욱성을 꺾고 영의 시간을 보내면 욱성이 장사 지낸 바 되어 욱성이 죽고 깨끗이 청산된다.
7. 신경질 내고 화내면서 욱하고 행동하는 것만 욱성의 행위가 아니다. 욱하고 편안하게 행하는 것도 다 욱성이다.
8. 욱신의 안일함과 욱신만을 위한 삶들이 다 욱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환난 때 고통의 불이 나는 화근이 된다.
9. 형제와 다투고 싸우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 불이 일어나듯 한다. 즉시 멈춰야 그 불이 꺼진다.
10. 다투고 싸우는 것은 방축이 새는 것과 같고, 집에 불이 나서 타는 것과 같

다.

11. 다투고 싸우는 것은 욕성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욕성이 일어나는 것이 불이 일어남과 같다.
12. 자기 욕신만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욕성으로서 욕하는 마음이다.
13. 자기 욕성을 없애려면 기도해야 된다.
14. 욕성은 잡초같이 자꾸 솟아난다. 고로 매일 뽑아야 된다.
15.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자는 회개하지 못한다.
16. ‘회개’는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을 받지 않게 한다.
17. ‘회개’는 뱀이 물려고 하는데 때려잡는 것과 같다.
18. ‘회개’는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피하는 것과 같다.
19. ‘회개’는 각종 위험이 닥치는데 미리 피하는 것과 같다.
20. ‘회개’는 죽음의 병이 왔는데 이를 알고 즉시 수술하거나 약을 먹고 해결하는 것과 같다.
21. 그러니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고통이 닥쳐온다.
22.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죄뿐만 아니라 형제의 죄와 민족과 세계의 죄까지 자기와 다 연결되어 그 죄값을 받게 되기도 한다.

23.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주님의 것이 되기에, 하나님과 주님은 죄를 두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24. ‘회개’는 행하는 것이다.

25. ‘회개’는 매를 피하게 하여 없애고, 생명길로 가게 한다.

26. 죄를 경히 여기지 마라.

27. 자기 죄를 찾아라. 그리고 회개하여라.

28. 자기 죄를 용서받은 자는 그때부터 복을 받는다.

29. 형제가 마음에 거슬리고 속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욕하고 성질내면 자기 집에 불이 붙는 격이 된다. / 참으면 욕하는 마음을 죽이는 것이 되어 복이 온다. 환난의 불이 꺼지는 것이다.

30.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데 형제가 모르고 아니라고 할 때 욕하게 된다. 그에게 가르쳐 주지 못할지라도, 그가 계속 잘못된 것을 주장할지라도 욕하고 화를 냄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31. 상대가 심정을 몰라준다 해도 다투고 싸우는 것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이 모든 것이 영의 법에 걸리는 것으로서 모두 회개거리다.

32. 상대와 대화하다 보면 서로 심정이 안 맞아 다투게 되고, 그때 욕하고 욕성이 일어난다. 이때 지혜자는 희생하고 갈 길을 돌아서 간다.

33. 다툼은 피하고 가야 갈 길을 가게 된다.

34. 욕성은 불의를 보고 일어난다. 불의를 보고 욕성이 일어날지라도 욕성이

일어나면 그 역시 불의다.

35. 참는 자가 승리한다.

36. 상대가 옳지 못한 것을 주장하더라도 옳하는 욱성을 참고 영성으로 가르쳐 주어라.

37. 욱성이 강하면 영성은 약하다.